

제7회 ASP 동서대에서 펼쳐지다

아시아 13개국의 학생들, 아시아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자 다짐



▶ 지난 7월 27일 열린 제7회 ASP(Asia Summer Program) 폐막식 단체사진

지난여름 제7회 ASP(아시아 섬머 프로그램)가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간 동서대에서 열렸다. ASP(아시아 섬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학들이 매년 1회씩 장소를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이 프로그램은 2013년 제2회 ASP를 동서대에서 개최한 후 5년 만에 다시 동서대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대학교수들이 강의하고 학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로 초청해 운영해온 섬머 스쿨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번 ASP에 참여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모두 13개 국가다. 참가 대학은 말라야대(말레이시아), 페트라 크리스찬대(인도네시아), 조사이국제대(일본), 광둥외외무대(중국), 싱가포르 사회과학대(싱가포르), 방콕대(태국), 다포넬국제대(방글라데시), 비폴대(필리핀),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리투아니아), 노튼 대(캄보디아) 등 42개 대학이다. 또한 이번 ASP에 참가하는 학생 수는 동서

대를 포함한 42개 대학에 369명이다. 참가한 이들 대학에서는 모두 40명의 교수를 동서대 캠퍼스로 파견해서 3주 과정의 37개 과목을 영어로 강의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목이 많이 개설된 것이 특징이다.

폐막식에서 장재국 총장은 “전 세계에 기회는 널려 있다. 여러분 모두 큰 꿈을 꾸길 바란다. 이번에 맺은 국제적 네트워크 계속 유지해 달라” 당부했다. 장재국 총장은 이어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이번에 맺은 교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이런 국제적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사회에 나아갈 때 대단히 중용하다. 2018 SAP에 참가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ASP 참가는 인생에 큰 진전을 가져온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를 돌아본 이들은 3주간의 집중적인 국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7월 27일 폐막식에 모여, 크게 성장한 자신들을 확인하며 뿌듯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

다. 3주간 우정과 지식을 쌓은 학생들은 서로 약속과 포용을 했고 한마음으로 “앞으로 더 성장해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자”라고 굳게 다짐했다. ASP에 참가한 관광경영전공(4) 조예원 학생은 “3주 동안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과 영어로 진행되는 ‘understanding cross culture’ 수업을 들었다.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의견발표도 하고 자신들의 생각도 나왔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온라인으로만 접했던 나로서는 현지 친구들과의 이야기와 선생님의 설명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영어학과(1) 김윤창 학생은 “외국인들과 같이 생활 한다는 게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정말 그 3주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평일에는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면서 친해지고 주말에는 같이 놀러 다니면서 친해지는 경

우가 많았다. 외국인들이랑 이렇게까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데 정말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의 타이 느기치는 “아시아 곳곳에서 파견된 교수들로부터 받은 수업은 정말 대단했다. 수업시간에 수많은 나라의 학생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나라마다 다른 사고방식도 접할 수 있었다. 이번 ASP에서 단 하나의 불만은 부산을 완벽히 탐사하고 더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폐막식은 ▲ASP 폐막 영상 ▲동서대 총장 인사말 ▲페트라 크리스찬대 부총장 인사말 ▲다포넬국제대 이사장 인사말 ▲수료증 전달 ▲참가 대학 학생들의 조별 자기자랑 ▲연기와 학생들의 수영아류 공연 ▲ASP 깃발 전달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2019년 제8회 아시아섬머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페트라 크리스찬대학(PCU)에서 개최된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컴퓨터공학부 URP에 4개 과제 선정

600만 원 연구비 지원받아 연말까지 연구 수행



▶ 컴퓨터 공학부 URP 참여 교수와 학생들

컴퓨터 공학부 IMRC(Interactive MR Convergence Research Center) 연구센터(센터장 조대수)가 “2018년 URP(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4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URP(학부생 연구프로그램)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자기주도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융합 분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융합 분야 선정과제 10개 중 동서대학교 컴퓨터 공학부 IMRC 연구센터의 신청과제에서 4개를 선정했다. IMRC 연구센터는 향후 선도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VR 및 AR 기술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각종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시스템 등과 같은 관련 전공 분야와 접목하여 다양한 응용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현재 교내 IMRC 연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공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컴퓨터공학부 교수 3명 및 센터 전담 연구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처럼 같은 학교의 같은 학과에서 4개 과제가 동시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선정된 4개 팀은 각 팀별로 6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URP 과제 1은 라이파이(Li-Fi) 및 음성인식을 활용한 스마트 퍼포먼스 시스템으로 사람이 직접 그림자 모형을 들고 연구

를 진행하는 기존의 그림자놀이나 그림자 연극을 기반으로 해 기존의 제품보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음성인식을 활용한 스마트 퍼포먼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URP 과제 2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기존 IMRC 연구센터에서 진행해오던 홀로그램-Fitness(가제)의 확장으로서, 기존의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체성분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나타내주는 헬스케어 서비스 연구 및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URP 과제 3은 AVR(자동전압조정기)을 이용한 소방안전 교육 시스템으로 기존 IMRC 연구센터에서 진행해오던 ‘실감형 VR 시스템 개발 연구’를 확장시킨 연구과제다. 시청각적 감각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제한된 VR 교육 방식에 이동성과 촉각적 감각을 강화시켜 현실감 있는 소방안전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URP 과제 4는 최근 5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한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공유 숙박 운영 플랫폼의 신뢰성 및 정보 공유 효율성 향상 기법 및 이를 위한 MR 콘텐츠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로맨틱 펠리스’ 쇼케이스 공연

내년 초 전막 워크숍 공연 후 상용 공연으로 발전 계획



▶ 만화 ‘궁’을 바탕으로 창작한 뮤지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시도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지향하는 동서대와 재담 미디어는 8월 18일 샌텀시티 소향 시어터에서 동서대 뮤지컬과의 최정에 제작진과 가족 기업들이 협력해 만든 창작 뮤지컬 ‘로맨틱 펠리스’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했다.

이 뮤지컬은 박소희 작가의 인기 만화 ‘궁’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동서대 뮤지컬과와 재담 미디어, DS 뮤지컬컴퍼니가 함께 만든 ‘로맨틱 펠리스’는 이번에

80분 분량의 콘서트형 워크숍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초에 2차 전막 워크숍 공연이 펼쳐진다. 동서대와 재담 미디어는 워크숍 공연 후 투자 유치를 통해 상용 공연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로맨틱 펠리스’는 온 국민의 아이들이 왕세자와 정략결혼을 하게 된 평범한 소녀 채경과 그녀를 둘러싼 왕세자 이진과 왕위 계승 서열 2위의 이훈의 삼각관계를 둘러싼 가상의 입헌 군주국 대한민국의 왕궁에

서 펼쳐지는 로맨스 내용을 담고 있다. 박소희 작가의 만화 ‘궁’은 배우 주지훈, 윤은혜가 드라마로도 출연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동서대 LINC+사업단 조대수 단장은 “창작 뮤지컬 ‘로맨틱 펠리스’는 창작물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학협력 결과물이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도록 하는 동서대만의 노하우가 담겨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지

역사회 혁신 문화콘텐츠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선 연출은 “로맨틱 펠리스의 작지만 힘찬 첫 발걸음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동서대와 재담 미디어가 함께하는 이번 뮤지컬이 산학협력을 통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원작자인 박소희 작가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공연에 가까운 멋진 무대를 보여주어서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연습무대이자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동서대에 갖춰져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이번 공연처럼 산·학 협력으로 제작된 공연들이 많아져 국내 어디에서는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2월 28일 동서대와 재담 미디어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박소희 작가의 작품 ‘궁’의 뮤지컬화에 합의하고 6개월간의 시나리오와 음악개발 절차를 마친 후 선보이게 됐다. 뮤지컬 ‘로맨틱 펠리스’는 상용 공연 개발과 동시에 동서대의 특성화 분야를 활용하여 캐릭터,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문화상품 등의 다양한 OSMU 사업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최우수 경영 수상

동서대 이재환 총동문회장 모교 위상을 높여



▶ 동서대 이재환 총동문회장

6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시상식에서 토크 대표이사인 이재환 동서대 총동문회장이 최우수경영상을 수상했다.

이재환 총동문회장 “매 순간 동서인으로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 모교의 위상을 이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재환 총동문회장은 “하반기 시작을 좋은 소식으로 사랑하는 3만 동서대 동문 여러분께 인사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매 순간 동서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토크는 1992년 설립된 디스플레이용 공장 자동화 업체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사업, 2차 전지 제조 장비 사업, 반도체

제조 장비 사업, 태양광 관련 사업, 나노 섬유 양산 제조 장비 사업 및 나노 분리막 사업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세 포 배양 자동화 공동 개발로 바이오 및 제약시장에도 진입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겸 혁신실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재욱 거래소 코스닥시장 위원장, 수상기업 임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우수경영상은 파에스케이·토크, 최우수4차 산업혁신기업상은 고영테크놀라지, 최우수대표주주회사상(이상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은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돌아갔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2018 제일기획아이디어페스티벌

빛나는 아이디어로 금상을 차지한 광고PR학생들



▶ 시상식 사진

▷ 사진 출처 - 제일기획 아이디어페스티벌 홈페이지

지난 7월 6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제일기획 본사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39회를 맞이한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1978년 만들어진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제일기획이 광고 및 마케팅을 맡고 있는 기업들의 최신 현안이 주제로 나온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이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영상광고 ▲옥외광고 ▲인쇄광고 ▲온라인 광고 ▲광고 기획서가 과제였다. 심사는 1차·2차 예심과 본심의 3단계로 진행하며 4월 18일(수) 10:00시~4월 25일(수) 17:00시까지 출품 접수를 마감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원자 66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제일기획 임직원과 대학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3차례 심사해 총 수상작 31편을 선정했다. 여기서 동서대 광고 PR 전공 학생들이 '제39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옥외광고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금상 수상작은 ▲그리움을 비우다, 마음을 채운다모카 우유곡 ▲그녀는 작했다 ▲모카폴드 배달 왔어요~ ▲Voice fish_강의 남김없이 발라먹기로 선정됐다.

광고 PR 전공 학생 안대해, 윤아영, 이윤지, 이경민 씨의 아이디어는 전공 뉴미디어론 수업(지도교수 양웅) 과제로 탄생

했다. 이들이 응모한 부문은 커피 브랜드 프로모션 아이디어. 커피믹스를 즐기지 않는 젊은 층의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식사 후엔 커피믹스가 제격'이라는 콘셉트로 배달 서비스를 활용했다. 옥외광고 캠페인 수상작 '모카폴드 배달 왔어요~'는 배달 업체의 컵가락 포장지의 앞면과 뒤면을 업체 광고와 커피믹스 포장으로 디자인했다. 이를 뜯으면 컵가락 또는 커피믹스가 나오게 만들었다.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요즘 젊은 사람의 식문화를 반영해 광고 효과를 높였다는 평이다.

금상을 받은 학생들은 "뉴미디어론"이라는 양웅 교수님의 수업에서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맥심 모카폴드'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광고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나무젓가락 포장지 한 면이 맥심 모카폴드 커피믹스 디자인이면 사람들의 흥미도 끌고 식후에 커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고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했지만 교수님의 피드백과 조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이렇게 큰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었다. '금상'이라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받고 나니 욕심이 생겼고 지금 광고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거듭해 더 큰 상을 받고 싶다."라며

"앞으로 제일기획 사장님을 자주 뵙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광고 PR 4학년 모향, 송유라, 권혜민, 김희정 씨가 작품 '나도 끼워줘'로 옥외광고 부문 동상을 받았으며, 같은 광고 PR 전공 3학년 김예지, 장희진 학생은 작품 '이마트와 함께하는 청년 창업 공생 프로젝트'로 기획서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제일기획 유정근 사장은 "오늘의 수상이 대학생들의 작은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에 뜻을 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출발이 되길 바란다."며 "관찰과 고민을 쌓아서 광고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 주는 신선한 생각들을 더 많이 펼쳐 달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제일기획은 금상 수상팀 중 2명씩 선발해 올해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스파이스 아시아 광고제'의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보다 더 많은 제일기획의 아이디어 페스티벌의 수상작을 보기 원한다면 2018 제일 기획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료 출처 : 전자신문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낙동강 자전거 탐사 수기

220km를 달리는 자전거 종주



▶ 종주를 앞두고 점검 하고 있는 모습



▶ 낙동강 환경봉사단 20기 단체사진

낙동강에 대한 흥미도 스스로 자전거를 잘 타는지도 모를 만큼 자전거를 타본 적이 오래됐던 상황 속에서 220km라는 숫자의 무게감 앞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체력적 한계에 대한 도전으로 신청을 하였다. 그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에 몰려 가볍게 시작했던 처음의 마음과 달리 3박 4일이라는 기간 동안 작은 자전거 안장 위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감정과 생각을 쌓을 수 있었다.

종주를 하며 위험한 순간과 체력적으로 지치던 순간에 교수님과 간사님, 안전 팀이 귀신같이 나타나 지켜주었다. 그분들을 보며 타인을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느낄 수 있었고 그분들의 보호 아래 '나에게 위험한 순간이 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켜주겠구나'라고 느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연대와 함께의 가치를 몸소 느꼈다.

선발대에서 달렸을 땐 이따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후발대로 달릴 땐 앞서간 친구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종주를 하며 서로 다치지 않았을까 염려하며 앞을 지켜봐 주고 뒤로 돌아봐주는 시선, 오르막을 오를 때나 페달을 밟는 힘이 떨어질 때 타이밍이리며 응원해주는 목소리, 그날 하루를 마친 후 서로 다독이던 손짓

들은 강한 소속감을 들게 하였다. 조원들은 나에게 힘이 되었고 나 역시도 다른 조원의 힘이 되어줬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달렸다면 몰랐을 감정들이었다. 각자의 페달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길을 가기에, 함께 하기에 강해지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다. 혼자보다는 집단의 힘을 또 한 번 경험하고 증명한 것이다.

종주길 위에서 그늘 한 점 없이 내리쳐는 태양과 온몸을 적시는 비,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 등 체력을 갉아먹는 요소들에 우리는 지쳐갔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그들을 이끌어야 하고 뒤쳐지는 친구들은 다독여야 했으며 물을 권하고, 응원해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력이 바닥났을 때 그들을 지켜내는 이들은 그 순간에도 체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들이었다. 모두가 예민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힘든 순간 건 내는 물이, 응원이, 일어나라며 내미는 손이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든지, 또 자신의 평판과 필멸이를 만드는지 배울 수 있었다. 타인을 위하고자 한다면 체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 내가 앞으로 갈 사회복지라는 분야에서 정신적인 강인함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의 강인함이 도움이 될 것 같다.

4일 내내 낙동강 곁을 달렸다. 매년 여름 휴가철 바다와 계곡으로 떠나며 강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자연의 광활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낙동강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데 그 안의 생명수인 강물만이 부자연스럽고 썩어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생명수가 오염됐는데 그 안에 사는 생명들이 언제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언젠가 사라질 수 있을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낙동강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낙동강이 죽으면 그 곁의 자연이 죽고, 죽은 자연 위에선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살 수 없다. 가장 늦은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라고 지금부터라도 낙동강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상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 종주를 마치며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내 모습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고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 4일간의 대장정 속에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의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냈다. 이 경험은 더욱 연대의 힘을 믿을 수 있는 큰 밑거름이자 자신감이 될 것이다. 이혜주(사회복지학부·4)

2018 국제기술봉사단 수기

드라마 까지! 리모



▶ 국제기술봉사단 단체사진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행복했던 추억을 되새겨본다. 작년 말 국제기술봉사단이라는 공고를 보고서 재밌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대학생이라면 꼭 해보아야 할 것만 같았던 해외봉사!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 운이 좋게도 국제기술봉사단 23기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유례가 깊은 국제기술봉사단은 인도네시아 어려운 마을들에 작은 손길들을 내밀며 봉사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선후배들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출국 전 다양한 봉사활동까지 생각보다 너무나도 알차고 유익했다.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사랑의 연탄 나르기, 한센 병이라는 아픔에 한 발자국 다가가 정성을 다하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공감하며 보낼 수 있도록 봉사활동까지 어느 것 하나 가르침이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어느새 우리 28명의 단원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서로 많이 친해져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제 진짜 인도네시아로 봉사를 떠날 시간이 되었다. 진짜 국제 봉사를 하러 간다는 설렘 반, 단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활동이라는 아쉬움 반을 안고 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 그동안 준비한 춤을 오픈닝 세리머니에서 선보였다. 노래에 따라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였고,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했기에 노래가 끝났을 때 정말 가슴 벅했다. 7개국 학교의 멋진 오픈닝 세리머니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본격적인 봉사의 시작! 우선 배정받은 마을 친구들을 만나 팀 빌딩으로 마을에 가기 전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도착한 리모 마을. 지금 생각하면 마을에 도착한 그 순간 리모가 이리도 내게 소중한 곳이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3주간의 봉사, 다양한 프로젝트와 작업들은 이번 활동을 통한 좋은 경험이 되었다.

마을에 도착해 각자가 묵을 집을 배정 받았다. 말보다 웃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마을 생활을 시작했다. 사실 소문으로만 들어서 인지 먹는 것에 관하여 내심 걱정이 되었었다.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하지?"에서부터 "물같이하면 어쩌하지?" 등의 걱정이었다. 그러나 이부(인도네시아어 어머니를 칭함)께서 치러주시는 밥은 정~~말 맛있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죄송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다. 그 자리에서 번역기를 들고 "레자! 레자! (맛있어요!)"라고 외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 뒤로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부께서 해주시는 밥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식사마다 달달한 차를 항상 준비해주셨는데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는 나인지라 발작발려 잠도 마셨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이부께서는 말없이 언젠가부터 차 3잔을 준비해주셨다. 하나는 톨메이트 컵, 나머지 두 잔은 나의 것. 이때 처음으로 친 어머니가 나를 챙겨주시는 사소한 사랑이 이곳에서도 느껴졌다. 기쁨을 계속하는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무더운 날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오면 귀한 얼음 동동 띄운 차를 항상 준비해주셨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차가 어찌나 그리운지 모른다. 3주간 매일 손짓으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항상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족함 없이 먹여주고 기뻐해주신 우리 이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낮이든 밤이든 나를 힘들게... 그리고 즐겁게 해주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리모 마을 어린이들'이었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밝은 미소를 지닌 아이들은 "까!"(오빠, 형)라고 나를 부르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내 일상에선 볼 수 없었던 밝고 맑은 아이들의 미소에 힘든 줄도 모르고 함께 뛰어다녔던 것 같다. 나도 한때는 저런 미소를 가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한 편으로 리모 아이들이 참 부러웠다.

세상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세상은 편리함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리모의 아이들, 그리고 리모 마을 사람들을 보면 편리가 행복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상 걱정 다 버리고 나도 순수하게 어린이들과 함께 뛰놀며 그 순간만큼은 다스림 받은 미소를 지닌 채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그리고 함께 리모에서 동고동락한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최고의 친구들이 있다. 각자 국적은 달랐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느꼈다. 때론 각 나라의 문화 차이에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생각해보면 이 또한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나! 생각했다. 나이도 성별도 중요치 않았다. 나보다 어린애도 지혜로운 친구들이 있었고 나보다 부유한 삶을 살아감에도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있었다. 함께 땀 흘리고 같이 웃고 울고 하다 보니 어느새가 정말 가족이 되어있었던 우리. 헤어짐이 얼마나 아깝고 아렸는지 모른다. 3주라는 시간은 인연을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사람을 만나고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된 활동이었고 내게 마지막 대학 활동임에 있어 하나도 부족함 없었던 최고의 여름이었다. 한 번 하는 대학생활에 국적을 막론한 친구들 그리고 일상에선 찾기 힘들었던 여유, 마지막으로 한때 잊고 있었던 순수한 행복까지 이 기회를 여겨 준 답을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마련해준 나의 동서대학교에 감사를 표한다.

나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나의 젊음과 열정을 봉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편안과 사랑을 봉사해주었다. 줄 땀 몰랐지만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많은 것. 그것이 봉사였던 내가 이번 여름 인도네시아 한마을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김동혁(건축도목공학부·4)

20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3개 작품 위너선정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4년 연속 위너



reddot design award

▷ 사진출처 - 네이버포스트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이라 불리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3개의 작품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는 4년 연속 수상이다. 이 공모전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공모전 중 하나다. 이번 2018 공모전에는 전 세계 45개국에서 8,600여 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또한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심사를 맡았다. 크게 ▲제품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컨셉 디자인으로 나뉜다. 제품 디자인은 세 분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영역으로 2000년까지 Design Innovations으로 알려져 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을 전반으로 하는 시각디자인 분야를 비롯하여 광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사운드 디자인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작품들을 선정했다. 컨셉 디자인은 컨셉 디자인 분야에서는 새롭고 창조적이며 흥미로운 아이디어 비전을 선정했다. 이 공모전은 가구, 생활용품, 기계, 자동차, 도구, 기계 등을 포함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영역에서 응모할 수 있다.

위너로 선정된 3개의 작품은 LINC+사업단의 융합 캠퍼스디자인 수업인 '아이 테이션 실습'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Safety Hologram(현대자동차)-이승현, 이현우(컴퓨터공학부), 김성재, 한지아(디자인학부) 학생들의 작품이다. 2차 사고의 예방을 위한 홀로그램을 디자인했다. 2차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로 인해 후속 조

치를 하던 차량이나 고장으로 인해 정차한 차량과 후속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Optical Train Display'(투명한 디스플레이)나 유라가 아닌 공기중에 레이저를 영상을 투영하는 기술)를 접목한 아이디어를 냈다.

두 번째는 Feel the music vibrating for a hearing impaired Dancer-김도현, 박형권(컴퓨터공학부), 이세명, 이우진(디자인학부) 학생들의 작품이다. 청각 장애를 위한 진동센서를 디자인했다. 비장애인 무용수에 비해 정확한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어려운 청각장애인 무용수를 위해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이를 위해 앱과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음악에 대한 박자의 길이와 세기를 등록하고 이렇게 등록된 음악은 의상과 연결된 센서를 통해 진동으로 나타내어 무용수가 음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작품은 Lock & Roll(롯데)-신민호, 이호섭(컴퓨터공학부), 윤지훈, 김규리(디자인학부) 학생들의 작품이다. 많은 캔을 한꺼번에 옮기는 것이 불편한 점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캔의 상단 홀과 돌출부를 스크루 방식으로 돌려 잡그도록한 형태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토익 시험 한번 안쳐본 나의 롯데 취업 이야기



▶광고PR전공 10학번 졸업생, 강수근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롯데그룹 공채 86기로 입사하여 현재 롯데건설 경영지원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광고PR전공 10학번 강수근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의 이야기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스펙 때문에 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저는 스펙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학성적도 딱히 없었고, 취업 성공 수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외 봉사활동이나 SAP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과연 어떻게 롯데건설에 입사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 유리한 채용 방식에 투자하라

저는 기업의 채용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단순 스펙이 아닌 직무 경험과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다양한 채용 방식을 내놓고 있었는데 롯데도 마찬가지로, 롯데아이디어공모전, SPEC테클 채용 등 다양한 채용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스펙은 없었지만 전공활동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특성상 공모전 수상 경험이 많았는데 우연한 계기로 롯데아이디어공모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탄탄한 기획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금상을 수상하여 결국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시작 당시 인터뷰 기회만 얻으면 최종합

격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험과 연구회회장, 학회장 등을 통해 업무 적응 및 단체 생활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기간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 걸어 다닐 때 뛰어다니고 짐을 옮겨도 남들 한 번 할 때, 전 두세 번 했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대 출신이 많아 상대적으로 OA(사무 자동화 능력)에 능통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 돋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어떤 사람이라 일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끝날 무렵 현장에 계셨던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한다", "어딜 가서도 성공하겠다", "별 해도 될 놈" 등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저는 최종 PT와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전환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 문 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취업문을 풀기 위해선 스스로 날카로우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두 자신이 가장 잘하는 한 가지를 잡고 닦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꼭 갖췄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기업의 채용 방식이 굉장히 많으니 잘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채용 방식을 선택한다면 대기업 취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나, 회사를 정해놓고 맞춰서 준비하는 것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광고PR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듯이 역량을 키운다면 어디서든 자신의 진가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라는 기업에 대해

마지막으로 회사 자랑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처음 입사를 하고 느낀 점은 밖에서 봤던 롯데의 이미지와 직접 들어와서 바라본 롯데의 이미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워라밸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업무 시간이 끝나면 마우스가 멈추며 컴퓨터를 종료해야 하는 PC off 제, 매주 금요일 문화 데이(조기 퇴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계열사의 본사에서는 6시간 되면 퇴근을 알리는 노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福利待遇이라고 불릴 정도로 임직원을 해고 시키지 않습니다. 개

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IMF때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만 않는다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 및 계열사 혜택이 좋다는 것 입니다. 그룹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복지는 물론이며 특히 임직원 카드를 통한 롯데 계열사 할인혜택은 정말 좋습니다. 롯데와 관련된 어느 곳을 가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 백화점 10%, 마트 10%, 면세점20%, 호텔60% 등.

네 번째로는 여성인재가 일하기 좋은 기업입니다. 연수원기간 동안 동기 여성 인재들이 가장 많이 왔던 얘기가 바로 여자가 다니기엔 좋은 기업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인재들을 위해 정말 많은 복지혜택이 존재하고 있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 'connected dot'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있는 일이 별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들이 모여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 취업 수기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신다면 저보다 더 훌륭한 후배들이시기 때문에 꼭 취업이 아니라라도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의 블루오션, 바다를 향해

청년, 귀어에 도전하다



▷사진출처 - pixabay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귀촌인 통계자료를 보면 30대 이하의 귀어인은 19.7%로 10명 중 2명이 20대 혹은 30대로 나타났다. 40대 귀어인도 24.6%를 차지했으며, 귀어인 평균 연령이 50.3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 어업 창업자 정착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 들리며 어촌에서 창업하는 청년 귀어인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의 귀어가 늘고 있는 이유는 新 어업과 해양 레저업 등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득 또한 높다는 장점 때문이다. 작년 어업 평균 소득은 약 4902만원으로 농업의 평균 소득인 3824만원보다 높다. 이처럼 새로운 어업에서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통영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귀어학교'가 있다. 단어가 낯선 이 귀어학교는 2018년 6월 22일에 개교된 전국 최초의 학교로 어촌으로 돌아오려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업 이론과 현장실무 교육 등을 지원, 지역 주민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이다. 전국에서 21명의 교육생이 모였으며 최연소 25세 교육생부터 30대, 40대가 그 주축이다. 각자 살아왔던 환경과 이력, 경험들이 전자만별인 도시 청년들이 가족사 생활을 하면서 현장 실습 위주의 8주 교육을 받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귀어학교로 입학했다.

귀어학교에는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귀어학교 1기 교육생, 김태현(이하 김씨)이 있다. 김씨는 대학교에서 영상 처리 분야 연구로 8년 동안

일하다 2016년에 창업을 위해 귀어했다. 그는 1년 동안 양식업을 배우면서도 "어업 전반에 대한 이론을 익혀 내실을 다지고 싶다"고 말하며 지난 6월 귀어학교에 입학하여 어업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싶은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김씨의 귀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조석현(이하 조씨)은 2015년에 귀어했으며, 부산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IT(정보기술)업계에서 일했다. 그는 양식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스마트 양식을 양식업에 도입하려 했다. 김씨는 이런 조씨에게 귀어를 권유받으며 어업 창업에 대해 눈뜨게 됐다.

올해는 새로운 도전으로 돌돌을 양식하지만 김씨는 "양식업을 운영하는데 자본 투자 규모가 크다. 수익 등이 일정치 않은데, 경험은 부족하니 불안감이 있다"는 어려움을 얘기했다. 조씨는 "무엇보다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청년 귀어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김씨와 조씨는 '스마트 양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양식장에 물고기에게 자동으로 먹이를 주는 시스템과 5개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먹이 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들 설치해 사무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화 시스템이 완성되면 수온 등의 환경 조건이나 양식기술 등을 기록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앞으로 김씨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 연구·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1인 미디어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자!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시대



▷사진출처 - pixabay

1인 미디어는 개인이 자신의 글, 사진, 영상 등을 대중에게 내보이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들어 유튜브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엇이든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게임, 영화, 패션, 뷰티, 스포츠, 음식, 취미 등 자신의 관심사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1인 미디어를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듯 쏟아지는 1인 미디어들 중, '영상' 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미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그 영향력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개인 관심사를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의 사례처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제작 관련 자격증들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영상과 관련된 자격증들을 소개하려 한다.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2002년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이다. 그래픽 디자인과 기술적 구현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21세기 첨단 정보화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및 배출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설을 요청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으로 ▲멀티미디어 개론 ▲멀티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 ▲멀티미디어 저

작 ▲멀티미디어 제작기술이 있고 실기시험으로 ▲멀티미디어 실무 작업이 있다.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기시험은 ▲산업디자인일반 ▲색채 및 도법 ▲디자인 재료 ▲컴퓨터그래픽스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60분간 시험에 응시한다.

실기시험은 컴퓨터그래픽스 운용실무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을 기준으로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기준이 된다.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디자인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래픽기술자격증(GTQ : Graphic Technology Qualification)

GTQ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래픽 기술 자격시험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증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1/2/3급이 있으나 1/2급만이 국가 공인이다.

실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기 없이 실기만으로 진행하며 국제 IT자격으로도 상호 인증돼 전 세계 48개국에서 그래픽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다. 1급은 100점 만점에 70점/2급은 100점 만점에 60점이 필요하다.

ACA[Adobe Certified Associate]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Adobe(이하 어도비)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을 공인하며, 관련 분야에서 수천 전문가의 추천서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국제인 증자격시험이다.

어도비에서 공인하는 국제자격으로 어도비의 소프트웨어인 ▲Photoshop(포토샵) ▲Flash(플래쉬) ▲Dreamweaver(드림위버) ▲Premiere(프리미어) ▲Illustrator(일러스트레이터) ▲Indesign(인디자인)의 자격시험이 있다.

특정 3가지 자격증을 획득하면 Specialist 자격증이 부여되며 일러스트, 인디자인, 포토샵 자격증 획득 시 Visual Design Specialist 자격증부여, 플래쉬, 드림위버, 포토샵 자격증 획득 시 Web Design Specialist 자격증이 부여된다. CC버전은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CS6버전은 갱신이 필요 없다.

시험은 50분 PC로 진행되며 전용 시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실기와 필기가 섞여 나오며 필기의 경우 객관식문제를 푸는 방식이며, 실기의 경우는 주어진 문제대로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디지털영상편집자격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이 자격증은 기본적인 편집이해도와 더불어 프리미어의 구성과 편집도구를 이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시험범위에 포함되었다.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시험과목은 1. 디지털 영상과 편집 2. 프리미어의 기본구성 3. 디지털 영상편집의 활용이다. 1급과 2급은 시험시간과 문제수가 다르다. 필기와 실기는 모두 60점 이상일 시 합격이며 1년에 시험은 한 번이다.

▲1급 필기 : 객관식 30문항 실기 : 작업형 6~8문항 제한시간 : 120분
▲2급 필기 : 객관식 25문항 실기 : 작업형 4~6문항 제한시간 : 60분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정보전달방법의 변화에 따라 시각디자인을 인쇄,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고 전달하기 위해 시행된 시험이다.

이 시험에는 응시자격이 존재하는데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디자인 혹은 미디어 관련 학과의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여야 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 사전, 직업 연구소, 위키백과, 청년희망재단 블로그
신혜정 기자, 임지석 수습기자
hyejung4947@gmail.com

책 속의 풍경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였으니...



- 책 제목 : 내 잔이 넘치나이다
- 저 자 : 박동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자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 남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책의 표지에서부터 보이는 저자의 말은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부터 가슴 깊이 무언가를 와 닿게 하는 느낌을 주는 것만 같았다.

학교법인 동서학원(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대지법대학교) 박동순 이사장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올해 팔순을 맞은 저자의 삶 속에서 체득한 감사와 은혜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이다.

저자는 1939년 통영에서 출생했다. 부산여고와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신시내티 신학대학원을 수료했

다. 부산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 일본 조사이국제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 핀란드 오울루국립대학에서 공학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남편 장성만 박사와 함께 학교법인(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대지법대학교)을 설립했다. 도서관장, 평생 교육원장 및 교수로 활동하다가 1999년, 동서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12년간 역임했다. 현재 동서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자서전의 목적은 ▲저자 서문 ▲1장 믿음의 뿌리 ▲2장 내 삶에 찾아온 변화 ▲3장 성경과 보습을 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름다운 동반자 ▲소향(小鄕)단상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동서학원 창립 30주년을 맞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 20년 만에 이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을 내기 전 20년 동안 더 숨 가쁘게 달려온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못 다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다시 한 번 책을 쓰는 용기를 냈다.”며 이 책을 출간한 이유를 설명했다.

책의 제목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편 23:5)는 시편 기자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시구다. 이 책에서는 저자 역시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다.

책의 다 읽고 나면 저자는 자신이 이

토록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까지 기도해줬던 동서가족과 협력해준 지역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저자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남편 장성만을 만난 것이라고 말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며 이뤄졌던 기적 같은 성취들로 지금까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한다.

필자는 이 책을 읽고 저자가 학교를 설립한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설립 당시 가지고 있던 ‘감사’를 현재에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인상 깊었기도 하면서 동시에 존경스럽기도 했다.

이 책 외에 저자의 자서로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1996년), <나의 꿈, 나의 대학>(2002년), <소향산책>(2007년) 등이 있다. -저자 서문 中 부족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처럼 풍성함으로 채워졌는지, 내 마음 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이룬 놀라운 결실을 통해 깨달은 그 뒷얘기들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 무엇보다 더 늦기 전에 내 인생길을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1)”

동서학원 설립 초기부터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구절이며, 넘치는 내 잔을 설명하는, 내가 찾은 비밀의 말씀이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이달의 영화—〈맘마미아! 2〉



- 영화 제목 : 맘마미아! 2
- 영화 감독 : 올 파커

영화 <맘마미아! 2>는 2008년에 개봉한 <맘마미아!>의 다음 이야기인 뮤지컬 장르 영화이다. <맘마미아! 2>는 딸 소피가 엄마 도나의 모든 것이 담긴 호텔 재개장을 준비하며 홀로서기를 결심한다. 소피는 엄마의 영원한 친구 타나와 로지, 사랑스러운 세 아빠들 샘, 해리, 빌에게 리옌 파티 초대장을 보낸다. 소피는 파티 준비를 하면서 엄마의 숨겨졌던 찬란한 추억과 비밀을 들여다보게 되고, 파티에는 뜻밖의 손님까지 방문하게 된다. 2018년 8월 8일에 개봉하였고, 영화는 총 114분 동안 상영된다.

10년 만에 관객들에게 다시 찾아온 이 영화는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에게 다시

한 여름 영화관을 찾아온 바캉스

추억과 몽글한 감정을 선물 한다. 영화에서 나오는 영상미와 스토리, 노래는 화려하면서도 웅장하게 느껴진다. 뮤지컬 영화라고 하면 긴 상영시간과 대사보다 노래가 나와서 지루하게 느낄 수 있지만 <맘마미아! 2>는 지루할수가 없는 영화이다. 이 영화를 보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댄싱퀸을 다시 영화관에서 듣는다면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딸 소피가 파티 초대장을 쓰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파티를 열기 위해서 엄마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소피는 파티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만만의 준비를 한다. 초대장을 받고 엄마 도나의 친구인 타나와 로지가 먼저 파티장에 도착하고, 소피는 두사람을 보면서 엄마를 생각하게 된다. 영화에서는 엄마 도나의 과거 젊은 시절 어떻게 그리스 칼로카이리섬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세 남자를 만나는 이야기마다 뮤지컬 음악이 나와서 이야기에 흥미를 더해 준다.

필자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두 아빠와 파티에 오려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소피가 준비한 파티가 열리는 칼로카이리섬에 도착하는 장면이었다. 아름다운 바다와 사람들의 웃음감을 잘 보여주는 영상미에서 댄싱퀸의 반주가 나오는 장면은 이 영화밖에 할 수 없다는 연출에 소름과 몽글한 감동이 찾아 왔다. 마치 명작의 뮤지컬 영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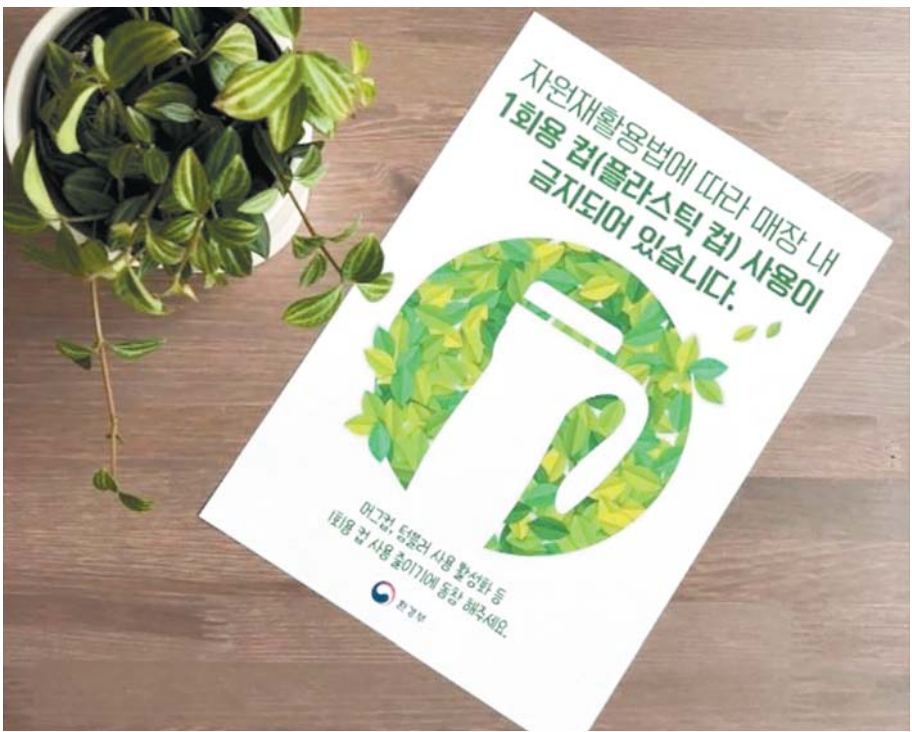
다시 돌아왔다고 영화에서 말하는 것 같아서 반가웠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도나는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가는 대로 부드럽게 또는 강하게 몰아치는 바람 같았다. 엄마가 되기 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여행을 떠나고,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 하는 사람스러운 소녀의 모습이 자유로워 보였다. 도나가 딸 소피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사랑하고, 소피를 기다렸는지 영화 장면을 통해서 엄마는 역시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나를 위해 가까이 자기를 찾아 외준 두 친구와 가게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행복 한 시간을 보내다가 두 친구와 이별하고 임신한 한 도나 혼자 폐허가 된 집을 호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과 혼자 출산이 임박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 영화를 보며 이해 할 수 있었다.

영화 속 OST는 스웨덴 팝 그룹 아바의 대표적인 곡들이 나온다. 아바를 모르더라도 노래를 들으면 아! 하게 되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노래들이어서 친숙하게 느껴진다.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도 노래를 잘하고, 직접 춤을 추고, 연출력도 좋아서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시원한 바다와 섬의 풍경 그리고 흥겨운 노래들과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마치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어울리는 여행과도 같은 영화라고 생각한다.

장희진 수습기자
jhn2087@gmail.com

커피와 카페문화에 대하여



커피는 이탈리아어로 카페(Caffe), 터키어로 카베(Khave), 아랍어로 카와(Qahwah)에서 영어의 커피(Coffee)가 유래된 단어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료로 연간 약 4천억 잔이 소비되고 있다. 커피에 대한 역사는 원두로부터 추출된 이 음료에 못지않게 자극적이다. 전설에 따르면 칼디(Kaldi)라는 이름의 에티오피아의 목동이 염소가 어떤 식물의 열매를 먹고 나뉘 흥분하여 날뛰는 것을 보고 커피를 발견했다고 한다. 또 다른 기원 역시 에티오피아와 연관되어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에티오피아의 사냥꾼과 전사들은 커피 열매와 동물의 지방을 말아서 만든 원시적인 에너지 바(energy bars)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누군가가 커피 열매를 물에 넣고 끓여 먹으면 원기를 북돋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커피의 역사는 시작됐다.

우리나라에는 1896년 러시아 공사에게 피신하면서 공사관인 웨베르(Karl Weber)에게 커피를 소개받으면서 커피 애호가가 된 한 황제가 있다.

“나는 가비(커피)의 쓴맛이 좋다. 왕이 되고부터 무얼 먹어도 쓴맛이 났다. 한때 가비의 쓴맛은 오히려 달게 느껴졌구나.”

-영화가비中

커피를 매우 즐겨 마시던 이 황제는 바로 커피 애호가였던 고종(대한제국 황제/1852~1919)이다. 커피가 한국에 처음 알려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가베’, ‘가베차’, ‘커피차’라고 하거나 ‘양탕국’ 등으로 불려졌으며, 고종은 커피 시중을 들던 손탁(Antoinette Sonntag)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따 손탁 호텔 건물 안에 커피하우스

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최초 커피집이다.

고종도 즐겨 마셨던 이 커피는 1890년 전후로 도입됐고 많은 사람들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에게 빠르게 전파됐다. 이 화여대 앞에 한국 최초로 ‘스타벅스’가 문을 열었고 그때부터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커피전문점들은 이제는 단순히 커피를 즐기는 장소를 뛰어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 과거의 다방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공부와 독서를 하는 도서관으로,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의실로도 이용된다. 커피전문점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단순히 음료를 제공함을 넘어서서 다양한 시설과 분위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다. 대학생인 우리는 카페 공간을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특이나 이런 카페문화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연령층이기도 하다. 커피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음료가 됐고, 카페문화 또한 하나의 대학생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로 들어서게 된 커피와 그에 따른 카페 문화들에는 과연 문제점이 없을까?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아르바이트 포털에서 최근 대학생 710명을 대상으로 ‘카페인 중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 필수품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48.3%의 응답률로 ‘커피’ 혹은 ‘에너지 드링크’라고 대답했으며 이어 ‘커피를 마

시는가?’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95.1%의 대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커피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마시고 있으며 보통 이들은 하루 평균 2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커피를 마시는 이유를 묻자 ‘습관처럼 마신다’(38.5%)는 답변과 ‘잠을 깨기 위해 마신다’(33.2%)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과반수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물 대신 커피를 마시면서 스스로를 카페인 중독자라고 한번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매일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원시 모르게 불안하다고 했다. 우리는 과제, 회의, 시험공부 등 다양한 이유로 커피를 찾아 마신다. 이제는 맛으로 찾아 마시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커피를 ‘습관적’으로 많이 찾아 마시기 시작했다.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서 생겨나는 부작용인 기침 두근거림, 불안증, 속 쓰림, 두통 등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커피를 적어도 습관적으로 마시는 행동은 자제해야하지 않을까.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한 번에 줄이기보다는 차츰 줄여나가며 커피 대신 마실 수 있는 다른 마실 거리를 찾는 것이 좋다. 커피 대신 차나 물을 대체하여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일회용 컵 줄이는 카페 문화

최근 커피 전문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회용 컵 사용 금지는 환경부에서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놓은 플라스틱 폐기물 50% 감축 대책의 일환이다. 2018년 8월 1일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며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에서는 무조건 다회용 컵(머그컵, 텀블러 등)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은 환경을 위해서 시행되는 이러한 정책을 수긍하고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문화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컵을 줄이면서 생겨나는 불편함과 문제점이 들려오고 있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중간에 나가는 소비자의 경우와 처음부터 매장 내 주문 시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매장 내에서 중간에 나가는 손님들을 위해 머그컵에 음료를 제공했다가 일회용 컵으로 바꿔주는 경우에는 설거지와 일회용 컵 소비, 2가지 부담이 매장 측에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 내에서 먹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일회용 컵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 측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해야하는 마찰이 생긴다. 게다가 본 대책의 취지에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에 있지만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종이컵도 해당되기 때문에 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카페인 경우에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제한되어 머그컵에 일일이 내주가 곤란하다는 실정이다. 환경을 위한 좋은 장점을 속에는 다양한 이유의 불편들도 있었다. 당신은 이 ‘일회용 컵 줄이기’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료출처 : 1%를 위한 상식백과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축제·공연·소식

그린플러그드 경주

- 기간 : 2018. 09. 15. (토) ~ 2018. 09. 16 (일)
-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공원
- 주최 : GREENPLUGGED 조직 위원회
- ▷ 사진출처 : 그린플러그드 공식 홈페이지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

- 기간 : 2018. 09. 13. (목) ~ 2018. 09. 19 (수)
- 장소 : 전남 영광군 불갑사 관감지 일원
- 주최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 사진출처 : 영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서천 흥원향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

- 기간 : 2018. 09. 01. (토) ~ 2018. 09. 16 (일)
- 장소 : 충남 서천군 서면 흥원향 일원
- 주최 : 흥원향 마을 축제추진위원회
- ▷ 사진출처 : 서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 기간 : 2018. 09. 11. (화) ~ 2018. 09. 16 (일)
- 장소 : 원주시 파주공연장, 젊음의 광장, 원일로, 문화의 거리 등
- 주최 : (재)원주문화재단
- ▷ 사진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홈페이지



천안흥타령춤축제

- 기간 : 2018. 09. 12. (수) ~ 2018. 09. 16 (일)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및 천안시내 일원
- 주최 : (재)천안문화재단
- ▷ 사진출처 : 천안흥타령춤축제 홈페이지



파주 북소리

- 기간 : 2018. 09. 14. (금) ~ 2018. 09. 16 (일)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일대
- 주최 : 파주시, 출판도시문화재단
- ▷ 사진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홈페이지



대구국제재즈축제

- 기간 : 2018. 09. 09. (일) ~ 2018. 09. 15 (토)
- 장소 : 대구광역시 일원(수성못, 수성아트피아, 동성로 야외무대, 김광석길 콘서트홀, VARIOUS)
- 주최 :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
- ▷ 사진출처 : 대구 국제 재즈축제 공식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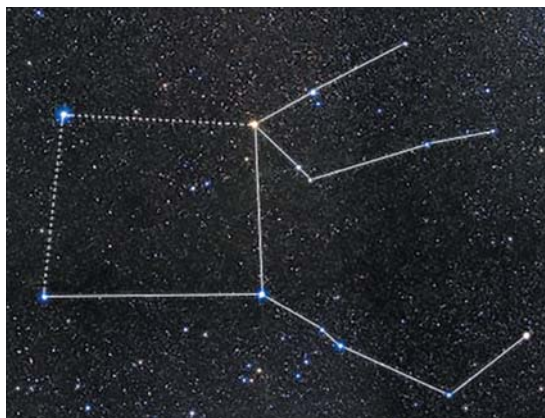


짧은 가을, 볼거리는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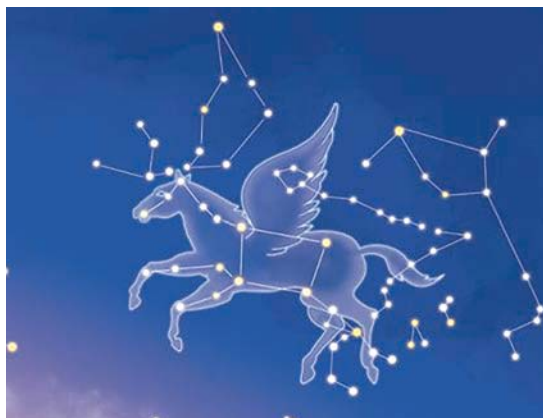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다. 유독 더웠던 이번 여름 때문인지 기다렸던 만큼 조금은 늦게 온 듯한 지금이다. 가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울긋불긋 예쁘게 물든 단풍과 높고 맑은 하늘이다. 새파랗고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짐과 동시에 가을이 왔음을 체감할 수 있다. 가을 하늘의 높고 맑음은 낮 동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여름내 길었던 해가 조금씩 짧아지는 만큼 우리는 어두운 밤하늘을 더욱 자주 보게 된다.

어린 시절, 반짝반짝 빛났던 별은 우리의 동심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하나둘씩 별들을 찾다 보면 별자리를 발견하기도 한다. 별자리의 정확한 개념은 별들을 몇 개씩 연결하여 신화 속 인물이나 동물, 물건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북쪽 하늘에서는 북극성 부근에 있는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볼 수 있는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카시오페이아자리 등의 별자리들을 볼 수 있다. 반면, 계절과 따라 다르게 보이는 별자리들도 존재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절기를 가진 만큼 더욱 다양한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노래가 너무나도 익숙했던 우리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하늘에서는 별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번에는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이라는 계절에만 볼 수 있는 별자리들과 그에 얹힌 이야기들을 알아보자.



▶페가수스자리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페가수스자리 (은하수 속으로 뛰어든 벨레로폰의 천마)

가을철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 중 하나인 페가수스자리는 남동쪽 하늘에 뜨는 꽤 커다란 별자리다. 위대한 영웅 페르세우스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비롯한 여러 신의 도움으로 긴 여행 끝에 메두사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때 떨어진 메두사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바위에 스며들자, 그곳에서 날개를 가진 천마 페가수스가 태어났다. 한편, 지상의 벨레로폰이라는 청년은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의 도움으로 페가수스를 얻었다. 그런데 왕의 아내인 안테이아가 벨레로폰에게 마음을 두고 자주 유혹의 손길을 뻗어왔다. 그러나 그는 안테이아의 유혹을 매정하게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안테이아는 왕에게 “벨레로폰에게 당할 뻔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화가 난 왕은 안테이아의 아버지인 리키아의 왕 이오바테스에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벨레로폰을 없애 달라”는 편지와 함께 그를 보냈다. 하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벨레로폰을 인정하고, 자신의 막내딸과 나라의 반을 주면서 후하게 대접했다. 하지만 벨레로폰은 자신의 성공에 들떠 오만불손해지고 말았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야말로 신들의 일원이 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페가수스를 타고 천상계에 오르려 했다. 결국 벨레로폰은 인간계를 떠나 신계로 가기 위해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로 향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제우스가 페가수스를 놀라게 해 벨레로폰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이때 놀란 페가수스는 은하수 속으로 뛰어들었다. 페가수스자리는 페가수스가 은하수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형상을 나타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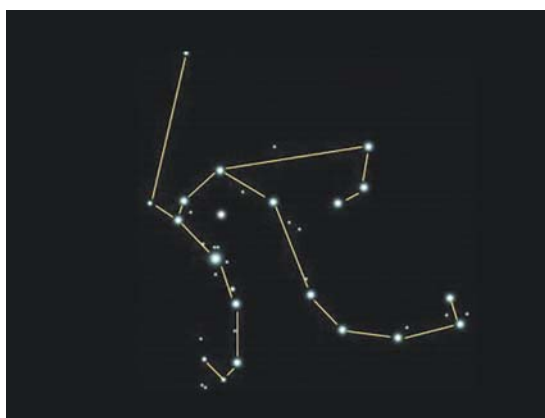
▶안드로메다자리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안드로메다자리 (우리 은하를 닮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자리한)

평소 ‘돌아올 수 없는 굉장히 먼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안드로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한다. 그래서인지 안드로메다자리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사실 ‘안드로메다’는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이다. 안드로메다자리는 가을부터 초겨울에 걸쳐 천정점 부근에서 볼 수 있는 크고 밝은 별자리다. 에티오피아의 공주인 안드로메다는 카시오페이아와 케페우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허영심이 많은 카시오페이아는 자신이 바다의 요정보다 예쁘다고 말하고 다녔고 결국 그것은 바다의 요정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요정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에티오피아에 홍수와 해일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포세이돈은 괴물 고래를 에티오피아에 보내 황폐하게 만들었다. 케페우스 왕은 이러한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쳐야만 했다. 하지만 그때 마침 천마 페가수스를 탄 영웅 페르세우스가 에티오피아를 지나가게 되었다. 안드로메다는 괴물 고래에게 희생되려는 찰나 페르세우스에게 구출되었다. 그러나 안드로메다의 약혼자였던 피네우스만은 좋아할 수가 없었다. 피네우스는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를 불러 모아 페르세우스를 덮쳤다.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피네우스 일당을 모두 물리쳤다. 훗날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결혼해서 약 1년간 에티오피아에 머물렀다. 안드로메다자리는 괴물 고래에게 제물로 바쳐진 안드로메다 공주의 형상을 딴 별자리이다.



▶페르세우스자리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페르세우스자리 (메두사를 무찌른 영웅 페르세우스의 전설)

페가수스자리, 안드로메다자리에 얹힌 이야기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페르세우스이다. 페르세우스자리는 겨울 하늘, 천정점에서 약간 북쪽에 서 볼 수 있는 상당히 밝은 별자리다. 이번 주인공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남부 아르고스 왕국에 사는 아크리시우스의 아름다운 딸 다나에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아크리시우스는 훗날 자신의 손자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신의 계시 때문에 모자를 모두 상자에 넣어 바다에 버렸다. 세리푸스 섬에 무사히 닿은 페르세우스와 다나에는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15년 동안 페르세우스는 장성하였다. 어느 날 세리푸스 섬을 다스리는 폴리데크테스 왕이 페르세우스의 어머니인 다나에에 반해 그녀를 차지하려 했는데, 페르세우스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폴리데크테스 왕의 미움을 받게 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없애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아테나의 미움을 사 머리카락이 모두 뱀으로 변해 버렸고, 그녀의 눈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돌로 변해 버리는 마력을 갖게 된 괴물이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이 준 거울처럼 빛나는 방패와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준 날개 달린 신발로 무장을 하고 메두사를 무찔렀다.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 돌아가던 길에 그는 바다 괴물의 제물이 될 뻔한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하고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의 사위가 되었다. 훗날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가 죽게 되었을 때 아테나 여신은 이들을 케페우스, 카시오페이아, 고래가 있는 곳에 두 개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



▶물병자리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물병자리 (약 15만 개의 별로 이루어진 구상성단 M2)

물병자리는 가을 무렵 남쪽의 중천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다. 세계가 황폐해진 청동의 시대에 제우스는 천재지변을 일으켜 세계 사람들을 모두 멸하려고 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만은 심성이 바르는데, 그의 영지인 테살리아를 절도 있게 잘 다스리고, 신들에 대한 공경도 잊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세계를 멸하려는 것을 알고, 아들인 데우칼리온과 피라만은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데우칼리온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것을 타고 도망쳐라”고 신탁을 내렸다. 이윽고 천재지변이 찾아왔다. 인류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방주에 탔던 데우칼리온과 피라만이었다. 그들은 세계에서 살아남은 인간이 자신들뿐이라는 것을 알자, 어떻게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려 밤의 여신 테미스에게 기도를 했다. 테미스는 “머리를 천으로 싸서 숨기고, 커다란 어머니의 뼈를 걸으면서 뒤로 던져라”하고 신탁을 내렸다.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대지를 커다란 어머니로 보고, 그 뼈란 대지를 구성하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신탁대로 옆에 떨어져 있던 돌을 어깨 너머로 던졌다. 그러자 그 돌은 순식간에 부드럽게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인류가 다시 번영할 것이라는 기쁨에 넘쳐 많은 돌을 던졌다.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에서는 남자가, 피라가 던진 돌에서는 여자가 태어나서 인류는 다시 늘어났다. 이후, 데우칼리온은 인류 제2의 시조로서의 공적을 신들에게 인정받아, 하늘에 올라가 물병자리가 됐다.



▶물고기자리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물고기자리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변신)

물고기자리는 황도12성좌의 마지막 성좌인 제12자리의 별자리다. 물고기자리는 커다란 V자 형태이며, V의 우측이 조금 길게 뻗어 있다. 성도에서는 하나의 끈에 연결된 물고기 두 마리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끈으로 이어진 인어와 물고기로 된 제비로 그려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물고기’자리라고 부르지만, 물고기자리의 학명인 Pisces는 물고기의 복수형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 호칭인 ‘쌍어궁’ 쪽이 형태를 더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에 나오는 에로스는 사랑의 신으로, 그가 가진 활과 화살 하나로 신들조차 사랑의 포로로 만들었다는 강력한 신이다. 어느 날, 신들은 나일 강가에 모여 연회를 열었다. 유명한 신이든 그렇지 않은 신이든 모두 모여 남프들과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연회의 소란스런 소리를 듣고 괴물 티폰이 나타났다. 티폰은 일찍이 제우스가 거느리는 올림포스의 신들과 싸움을 벌였던 티탄 신족의 일원으로 무서운 힘을 가진 괴물이었다. 이 갑작스런 침입자 때문에 신들은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 아들 에로스는 나일 강으로 뛰어들었다. 재빨리 도망치기 위해서는 물고기 모습으로 변신해야만 했다. 그리고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끈으로 연결했다. 이 물고기의 모습이 하늘에 올라가 물고기자리가 됐다고 한다.



▶양자리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양자리 (프릭소스와 헬레 남매의 전설)

그리스 중부의 아타마스 왕은 후처 이노는 아타마스의 전처인 구름의 정령 네펠레가 낳은 두 아이, 프릭소스와 헬레를 맡아 키웠다. 그런데 곧 자신에게도 아이가 생기자 두 아이를 귀찮게 여기게 되었다. 마침내 어느 해 그녀는 두 아이를 죽여버리기로 결심했다. 이노는 “전처가 낳긴 두 아이 프릭소스와 헬레를 제우스에게 산 제물로 바치면 흉작이 멈출 것”이라는 거짓 신탁을 왕에게 전하게 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프릭소스와 헬레를 산 제물로 삼는 데 동의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이노의 계획대로 프릭소스와 헬레는 제우스의 제단에 끌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프릭소스와 헬레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순간, 두 사람의 몸이 갑자기 나타난 양에게 휩싸였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자 이미 두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 기적을 이룬 것은 어머니 네펠레였다. 자신의 아이들이 위기에 빠진 것을 알고 제우스에게 도움을 청하여 하늘을 달리는 황금양을 받았던 것이다. 네펠레는 자신의 힘으로 두 아이를 운무 속에 숨기고 하늘로 끌어올린 후 황금양의 등에 태워 아득히 먼 북방에 있는 톨키스 땅으로 데려갔다. 이때 여동생인 헬레는 눈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에 현기증을 일으켜 그만 파도 사이로 떨어지고 말았다. 목숨을 구한 것을 기뻐한 프릭소스는 자신을 도와준 황금양을 감사의 표시로 제우스의 제단에 바치고, 황금 가족은 톨키스의 왕 아이아테스에게 헌상했다. 그리고 제우스는 양의 공로를 인정해 하늘에 올려보내 양자리가 탄생한 것이다.

자료출처 : 네이버 이미지
운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별생각 없이 지원했던 ASP 프로그램에서 봉사 STAFF를 지원한 후 꿈같은 여름방학을 보내게 되었다. 체감온도 39도를 뽕뽕아 웃 입은 자국 그대로 자연태닝이 될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 밖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모든 활동에 책임을 맡아 봉사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이번 여름은 끔찍하게 더웠다. 그렇지만 기숙사에 살던 내가 부모님께 가끔 사진을 보내면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고 말해주시곤 했다. 뒷모습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부모님은 사진만 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채셨다. 밤에 심심하다고 하면 당장 휴게실에서 만나주는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과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행복한 감정이 힘든 감정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구성하고 진행한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그 낯선 스트레스를 나를 흥분시켰다.

인도네시아에서 국제기술봉사단을 한 나는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가족들과 특별한 이별을 한 경험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엄마는 내외만 입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달리는 차에 뛰어오셨다. 여쭈면 나는 큰 짧은 시간에 사랑을 느꼈고 상황들이 너무나 슬펐으며 아직도 그분들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ASP를 마치고 울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낮

뜨겁게 맞이할 2학기를 바라보며

김아진 (디자인학부·2)

선 친구로부터의 편지를 받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에 울고 말았다. 내가 단지 STAFF라서 했던 일들이 그 착한 중국인 친구에게는 감사함으로 다가왔고 이틀조차 몰랐던 친구는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 혹은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나에게 편지를 주었다.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싫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나였을 뿐인데 크고 예쁜 마음으로 바라봐주어 미안함에 울고야 말았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ASP가 끝나고 자유로운 여름방학을 맞게 된 나는 유명한 여학원의 토익 단기간을 신청하게 되었다. CBT, 토익점수가 부족했던 나는 한 달 단기 점수보장반에 들어가게 되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공인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국제기술봉사단을 시작으로 영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나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회화에 자연스러워졌었지만 학교생활을 하며 한국어만 쓰다보니 공인점수도 없는 내가 회화까지 줄어들까 봐 걱정되기도 하였다. ASP를 하며 영어 기본기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언어에 감각이 있는 나에게 좀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2학기 때 토익을 교양 과목으로 신청해 영어공부를 지속 할 것이다. 학기 중에는 전공에만 집중하는

편이기에 때문에 좋아하는 영어와 병행하기 위해서 무언가 강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사에 흥미가 없던 내가 디자인의 역사를 배우며 내가 좋아하는 일의 뿌리를 알아 내가 하는 디자인이 어디서 기원되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놀라웠고 그것은 흥미로웠다.

나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고민할 때 받는 스트레스는 집에서 즐겁기까지 하다. 영어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해외 취업을 꿈꾸는 나에게 디자인과 영어는 당연하고 오래가야 할 친구 같다. 힘든 여정을 떠날때마다 같이 견디며 친구처럼 계속 같이 갈 존재, 나는 매 방학 때마다 꾸준히 디자인 프로그램,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영어공인점수와 회화준비로 국제적인 디자인어가 되기 위해 발판을 다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번 방학은 ASP로 나를 불태운 뜨겁고 따뜻한 여름이었고 복학 후 첫 여름방학을 후회 없이 보낸 거 같아 스스로 만족스럽다. 다음 학기는 더 밝은 미래를 맞을 준비 기간으로 또 덥게 살아가 보려 한다. 2학기 때도 내가 맡은 모든 일에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가끔은 쉬어가기도 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2학기를 시작할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Just do. Whatever you like!

죽비소리

짧았던 여름 방학이 바쁘게 흘러갔다. 생각해 보면 나에게 1학기도 너무나 빨리 흘러갔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번 1학기는 새로운 교과 과정과 조별과제가 많아서 해야 할 것들도 많아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고 느꼈던 것 같다.

바쁘게 하루를 보냈지만, 그 속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지역사회복지론 조별과제를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설문조사를 하러 다녔고, 과제가 많았던 기간에는 새벽에도 학교에서 과제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컵라면을 먹으며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힘든 만큼 보람도 있고, 얻는 것도 많았던 1학기였다.

나는 종강을 한 후 동아리원들과 송영으로 MT를 다녀왔다. 6월 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바닷가에서 노는 만큼 이어달리기도 하고, 이구동성 등과 같은 게임도 많이 하면서 선배와 동기, 후배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짧은 휴식을 하고 7월부터 나는 양정청 소년수련관에서 교의 국가 근로를 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청소년 상담심리전공인 만큼 나는 수련관에서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서 많은 것을 배울 기회였다. 양정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나에게 6번째 개강이란

최은영 (청소년 상담심리·3)

방과 후 아카데미가 같이 있어서 업무가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다른 업무를 해볼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웠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꼭 채워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언제 너는 쉬냐고 일이 그렇게 즐거운지를 물어본다.

나는 근로를 하는 동안 물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일을 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이러한 일을 할수록 자신감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좋다. 겨울방학 때에도 했던 곳이라 조금 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았고, 나도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어서 더 편했던 것 같다.

이번 근로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 또 자연스럽게 학기 중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을 듣고 조별과제도 다시 많아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 방학이 나에게서는 짧게만 느껴지지만,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방학과는 또 다른 재밌는 생활을 하루하루 하게 될 것 같아서 설렌다. 2학기에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금 더 많이 체험해보고 싶다. 학교에 있는 학생 상담센터도 이용해보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나씩 체험해볼 생각이다.

어느덧 나는 6번째 개강을 맞이한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맞는 1학년 때 고등학교와 다른 단어를 쓰는 개강이라는 단어도 낯설고, 어떻게 수강신청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허둥했던 경험들이 생각난다. 그때는 모르는 것도 많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의 경험들이 성장한 나로 이끌어 주었다. 서둘렀던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은 나에게 다시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항상 개강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 다짐을 하게 된다. 이번 학기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된다. 어느덧 3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도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성장하는 학기가 되고 싶다.

이번 여름 방학은 유난히도 더웠다. 가만히 있어도 축축 처지는 여름이었지만 방학을 통해서 학기 동안 못했던 계획들을 실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계획이 크지 않아도,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면서 실행에 옮기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과 실전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려는 동기 부여가 된다.

동서 대학교 학생들도 저마다 뜻깊은 여름방학을 보냈을 것이다. 여름 방학을 통해 1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면서 다시 2학기도 힘내서 열심히 달리는 알찬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달의 명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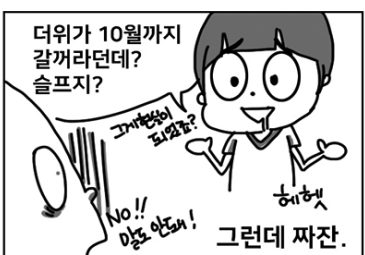
성공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NBA 농구선수 스테판 커리

비판은 수용해야 그것은 더욱 더 강하게 만든 것이다.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

내가 선택 굶는 순간 내 한계는 정하는 것이다.
—실전전 前 徐承恩 선수

방개의 대학일기

더위



방개는 물방개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물방개는 물에서도 헤엄칠 수 있고 날 수도 있는 곤충입니다. 우리 동서인도 어느 곳에서도 인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태어난 캐릭터입니다. 방개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가주

사 설

미혼과 비혼, 언뜻 보기에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두 단어가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의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미 : 혼] 아직 결혼 하지 않음, 또는 그런 사람. [비 : 혼] 주체적인 의미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혼인은 원래 해야 하는 것이나 아직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를 부정하기 위해 등장한 단어가 바로 '비혼(非婚)'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결혼은 필수적이었다. 이른바 기성세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결혼을 하라고 하고,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으라 한다. 그것이 '정상'이라 칭하며 자랑이었다. 하지만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는 문장의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것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야를 제공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여기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20대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꼽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감'을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력을 갖춘 20대 취업자도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육

아정연구소의 청년 대상 연구에 따르면 미혼 남자의 38.2%와 미혼 여자의 57.4%가 취업 상태임에도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내렸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 해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 층들이 결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기성세대는 개인의 가치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문화를 강조한다. 반면에 청년들은 개인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고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터넷 플랫폼의 확산이라는 변화의 계기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게 됐다. 현재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그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위로받는 등 여러 감정을 공유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교제는 꺼리고 있다. 더욱 크고 넓어진 관계망 속에서 자발적인 고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

미혼이 아닌 '비혼' 주의자입니다

는 것이 1인 가구 세대의 증가이다. 가족마저 부담스러워 혼자 살고 있는 지금의 20대는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삶을 추구하며 자기 결정권을 존중 받음으로써 행복해 한다. 지금의 20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 타인과 타협하며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 '비혼'을 결정한다.

또 다른 비혼의 유형으로는 '페미니스트 비혼'이 존재한다. 페미니즘이라는 운동과 이론들이 대중성을 갖게 되면서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성 불평등을 인지하게 생겨났다.

한국 사회의 풍토나 문화제도 등은 기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소위 근대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출산 통제 정책과 함께 생겨난 '미친 교육 열' 속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현저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났고 여성과 남성 모두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가족

모형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마저 부담스러워 혼자 살고 있는 지금의 20대는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삶을 추구하며 자기 결정권을 존중 받음으로써 행복해 한다. 지금의 20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 타인과 타협하며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 '비혼'을 결정한다.

또 다른 비혼의 유형으로는 '페미니스트 비혼'이 존재한다. 페미니즘이라는 운동과 이론들이 대중성을 갖게 되면서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성 불평등을 인지하게 생겨났다. 한국 사회의 풍토나 문화제도 등은 기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소위 근대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출산 통제 정책과 함께 생겨난 '미친 교육 열' 속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현저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났고 여성과 남성 모두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가족

이렇게 남성과 여성, 성별의 차이와 관계없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 선언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204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 미혼 가구 비율이 4분의 1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이들의 비혼 다짐은 이유는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앞으로 20대 이상 청년들의 비혼은 더욱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결혼의 여부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세대가 다른 만큼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생각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타인을 비난하는 것을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답안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응원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윤다는 기자
yoondaso73@gmail.com

동서만평

글·그림 최인아



■ 인터뷰1-〈DMZ 해마루 촌 봉사활동〉디자인학부 안병진 교수님

DMZ 해마루촌에서 예술이 피어나다!

동서대와 DMZ 해마루촌의 인연



▶갤러리 오픈

동서대학교와 DMZ 해마루촌이 어느덧 9년째를 맞이한다.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곳에서 디자인 예술마를 만들기 봉사활동을 지도하시는 안병진 교수님을 인터뷰해보았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하기에 앞서 교수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1996년에 우리 대학에 와서 지금까지 디자인전공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공예학과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시각디자인과 여러 디자인 분야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퓨전디자인을 연구했습니다.

1986년도 졸업 후 첫 직장인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하우스에이전시인 동방기획에서 화장품 광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황신해라는 배우를 모델로 매체광고 시안을 맡게 촬영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CI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휴대폰 브랜드 'Anycall'과 갤럭시아벡웍스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붓으로 쓴 갤럭시a 로고는 현재도 심벌마크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캘리그래피라고 심벌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약 3년여간 한국일보사에서 편집기자로 있을 당시 모든 신문사가 세로쓰기 활판 신문이었는데 신문 가로쓰기 편집(CTS)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실무를 하다가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 디자인을 콘셉트라는 개념도 없이 그림 그리는데 치중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디자인은 어떤 상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고하고 시각적,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통합적이고 맥락을 파악하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융합적 디자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융합적 교육의 일환으로 DMZ 해마루촌 '디자인예술마를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면이 있습니다.

Q. DMZ 해마루촌에서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A. 올해의 디자인예술마를 만들기 테마는 'DMZ에 평화 갤러리가 오다'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DMZ 내에 위치한 해마루촌에서 "DMZ에 평화 갤러리가 오다."라는 콘셉트로 사용하지 않아 버려진 마을 창고를 공간재생디자인을 통하여 세 개의 갤러리로 조성하고 '2018 DMZ 평화 포스터전'과 '사진전' 그리고 마을 주변의 생태식물들을 설치 전시하여 관람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마을 현장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계획된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 학생들과 연구원들은 모두 팀을 나누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갤러리 전시 파티션 Wall을 조립하고 페인팅하는 팀, 17년간 방치되었던 창고를 말끔히 청소하는 팀, 완성된 파티션에 작품을 디스플레이 하는 팀 등으로 나누어 효율적인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해에는 평화를 테마로 학생들과 교수, 졸업생들과 참여 전문가들이 사전에 준비한 작품을 비롯해 현장에서 제작하는 작품을 새롭게 만든 갤러리에 설치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콘셉트 회의와 사전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는 작업이 1년 내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동서대학교와 DMZ 해마루촌이 2010년부터 시작하여 어느덧 9년의 만남을 가지셨는데, 이번에도 참여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A. 매년 가장 더운 시기에 시간에 쫓기며 미션을 수행하듯이 작업하는 일이 힘들어서 몇 년간 하다가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여담이지만 9년간 여름휴가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하고 갔다오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톨도 없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판단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다녔던 선배들의 전공과 연계되어 있어 배울게 많고 보람 있다는 말들이 전해지면서 학생들이 이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도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환영식을 해주며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을 분들 모두가 9년이란 시간 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된 마을을 위해 꾸준히 봉사해준 동서대학교에 진정으로 고맙게 느낀다는 것을 주민들의 반가워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어 흐뭇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봉사활동은 디자인 전공 학생에게는 집중 워크숍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Q.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어떤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셨나요?

A. 무더운 여름이라 현장에서의 작업도 힘들었지만 학생들과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작품 작업과 정에서 학생들의 작업 수준을 높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막바지 작업에서 평화와 분단을 신선했던 아이디어로 표현하여 결과물로 잘 나타난 학생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특히나 평화 갤러리 개막식 날 마을 주민들과 주변 부대 연대장과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각자의 작품들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모습과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사람들을 보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땀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마주했던 주민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그날 저녁 내내 저도 많이 웃었던 거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9년이란 시간이 주는 선물인 듯 놀랍고 반가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은 갤러리 개막식까지 이어졌습니. 초빙된 학우를 관련 지휘관을 통하여 개막식에 초대하였습니다. 당일엔 연대장과 대대장 동료 병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마을 주민들과 개막식과 축하파티를 같이 하였습니다.

매카트모닉스 학부 신진환 일병, 내년 가을학기에는 복학한다고 합니다.

내년엔 해마루촌 봉사를 함께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장희진 수습기자 jhn2087@gmail.com

■ 인터뷰2-〈DMZ 해마루 촌 봉사활동〉박보승 학생

그들의 여름은 더 뜨거웠다

뜨거운 햇빛 아래 더 뜨거운 그들의 열정



▶갤러리 소개 중

이번 여름방학은 유난히도 더웠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월한 계곡, 바다를 마다하고 여름태양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조금 특별한 봉사활동을 다녀온 이들이 있다. 바로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학생들이다.

지난 7월24일부터 8월1일 까지 약 일주일 동안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비무장 지대 바로 밑(민통선) 민간인 출입 통제선 바로 너머에 있는 마을 중 하난인 해마루촌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해마루촌 마을 안에 평화 갤러리를 제작하고 남북 분단에 대한 사진들, 조형물들을 전시하는 봉사활동이었다. 이번 학생인터뷰는 DMZ 해마루촌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박보승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바쁜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신점 감사합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시각컬처를 다루는 아트와 디자인을 좋아하는 커뮤니케이션 루트 박보승입니다.

저는 드로잉아트, 그래픽디자인, 타이포그래피, 편집디자인, 아이덴티티, 패키지, 일러스트레이션 등 시각 분야부터 영상매체와 공공디자인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의 확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실에서 그림과 텍스트를 감상하는 걸 좋아하고 최근에는 독립출판 '벌터널'의 멤버로 합류하여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인쇄물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Q. 우선 이번에 다녀오신 DMZ해마루촌 봉사활동이 정확히 어떠한 봉사활동이었는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A.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DMZ해마루촌 봉사활동의 이번 주제는 '평화갤러리'입니다.

세 가지 테마로 구획된 갤러리에 '2018 DMZ 평화포스터전'과 '사진전' 그리고 설치물을 배치하였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그리고 전문작가님과 함께하여 이번 봉사활동은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생각의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

평화를 주제로 진행했던 '평화갤러리'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 남북평화 그리고 오랜 기간 평화를 기다렸던 우리들의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전환하여 갤러리 공간에 함축하였습니다.

Q. 아무래도 다른 봉사활동들과 달리 차이점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나요?

A. 모두가 만족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우리는 디자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게 다른 봉사활동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일정이 잡히면 참여 학생들과 교수님이 모여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험을 하며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모습을 디지털로 표현합니다. 디지털 작업이 완성되면 갤러리 공간에 필요한 재료와 색상, 흘러나오는 음악 등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준비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프로세스는 학기 중에는 쉽게 경험할 수 없고 전공을 살린 봉사활동이다 보니 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많이 배우게 되죠.

Q.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제가 DMZ해마루촌 근처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전에 DMZ해마루촌, 군생활도 DMZ해마루촌, 군대 다녀오고 DMZ해마루촌

어쩌면 인연일지도 모르겠네요.

Q.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커뮤니케이션 루트 친구들이 파이팅이 넘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정말 한여름이어서 생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덥고 지칠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한 명의 에너지가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죠. 여기서 얻은 긍정의 에너지를 다음 프로젝트에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Q. 다음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디자인 워크샵부터 프로토타입 제작까지 해보는 프로젝트인데 더운 날씨에 있다 보니 학생들이 단순한 노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DMZ,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건 예비 디자이너에게 정말 좋은 기회이고, 다음은 더 멋진 활동이 되려나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함께 만들어나가는 커뮤니케이션 루트 파이팅!

앞서 말했듯이 DMZ 해마루촌은 대한민국 최북단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해서 이번 봉사활동의 컨셉인 평화갤러리, 더 이상 남북의 분단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봉사활동이었다. 하지만 꼭 타인이 봤을 때 뜻 깊은 활동이 특별한 활동은 결코 아니다.

인터뷰를 응한 박보승 학생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군생활을 했던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DMZ 와 본인의 인연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으니 말이다. 본인에게 있어서 특별함을 느낄수 있는 활동이 정말 특별한 활동이 아닌가 싶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방학 중 이렇게 본인에게 뜻깊은 봉사활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러나 뜨거웠던 여름은 지나갔고 우리는 2학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우리들의 열정은 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 뜨거운 열정을 쓸 수 있는 곳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2학기에는 앞서 말한 뜨거운 열정을 봉사활동 혹은 다른 의미있는 일에 써보는 것은 어떨까? 다가오는 2학기, 박보승 학생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는지 다짐하는 학생들을 동서대학교 신문사가 응원한다.

김윤창 수습기자 mcdbsckd@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사울



▶최고는 아니었던 최초의 왕 사울,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는 모습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연 이스라엘의 초대 왕(삼상 9:1-2).

유브라테 강가 흐르하 출신으로 예뻐서 통치했던 왕들 중 하나(창 36:37-38; 대상 1:48-49).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아귀를 찾으며 다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왕으로 선택된 표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삼상 10:1). 사울은 여섯 차례의 전투를 수행했다.

① 길르앗 아베스 전투-암몬 족속과 벌인 전투다. 길르앗 아베스는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으로서 인근에 있는 암몬 족속 나하스 군대의 침략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요단 서편 기브아에서 봉사를 짓고 살던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즉각 배석에 군대를 소집하였다. 소집된 33만 명의 군사는 곧장 요단 강을 건너 길르앗 아베스로 향하였고 단숨에 암몬을 전멸시켜 길르앗 아베스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다. 이것이 길르앗 아베스 전투다(삼상 11장).

② 믹 마스 전투-사울 이전 엘리 대제 사장의 아들들이 전사하고 법제까지 빼앗

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끊임없는 위협과 지배하에 있었다(삼상 4-5장). 이에 빼앗긴 영토 회복과 선민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벌인 전투가 믹 마스 전투다. 이 전투에서 사울은 2천 명의 군사로 기브아에서 믹마스로 향하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1천 명의 군대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주둔군과 충돌부를 기습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집결하여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요나단이 이끄는 부대의 전공에 힘입어 큰 승리를 거두었다(삼상 13:1-14:46).

③ 모압, 암몬 등 주변 족속과의 전투-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회복한 사울은 주변에 있던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등 주변 족속들을 정복하고 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하였다(삼상 14:47).

④ 아말렉 전투-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당시 대열의 후미를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부족이다(출 17:8-

16).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히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다. 이에 사울은 군대를 동원하여 아말렉을 정복하였다. 하지만 아말렉 족속의 우람 소와 가족들은 그대로 남겨 두었다. 결국 철저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이 버림받게 된 계기가 된 전투다(삼상 15:1-9).

⑤ 엘라 전투-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블레셋 군대와 접전을 벌이게 된 곳은 기브아 남서쪽 32km 지점에 위치한 엘라 골짜기였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으로 인해 연전연패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찾아 전투를 하라받은 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 인기가 높아진 다윗에 사울은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삼상 17장). 이후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한편 다윗은 두 차례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 이후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몸을 숨길 수 없어 블레셋으로 도

주할 결심을 하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다(삼상 27장).

⑥ 길보아 전투-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중북부를 가로지르는 대부분 영토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블레셋은 에스드렐렘 골짜기로 이어지는 교역로까지 차단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블레셋은 사탄 평지에 있는 아베스로 군대를 집결시킨 뒤 해안 도로를 따라 모래 산기슭의 수백에 달도했다. 이에 사울은 수백 맞은편 길보아 산에 부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을 건 이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은 장렬하게 전사했고, 그들의 시신은 벤스안 성벽에 걸렸다. 이로써 사울의 40년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삼상 28-31장).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퍼하며 헤브론으로 돌아온다(삼하 1장).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라이프 성경사전, 성명의 말씀사 임지성 수습기자 limjiung0128@gmail.com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18 대한민국 향토 식품문화대전 자원봉사자
- 공모분야 : 봉사
- 모집기간 : 2018. 8. 1(수) 9 : 00 ~ 2018. 9. 30(일) 18 : 00까지
- 활동기간 : 2018. 11. 8(목) ~ 2018. 11. 10(토)
- 접수방법 : www.foodcf.co.kr 참고



- 제4회 해외자원개발 바로알기 공모전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 공모기간 : 2018년 8월 1(수) ~ 9월 2(일)
- 응모주제 : 해외자원 개발의 필요성 중 요성 바로 알리기
- 응모분야 : 슬로건(표어) 포스터 캘리그라피 아이디어



- 한국제지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 공모주제 : 한국제지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성하다. (패키지, 굿즈, UCC)
- 한국제지를 브랜드만의 색으로 채색하다. (포스터, 캐릭터)
- 공모기간 : 2018. 8. 1(수) ~ 2018. 9. 9(일)



-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광고 공모전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 공모주제 : 인쇄광고/영상광고
- 공모주제 : 함께 읽는 대한민국
- 공모기간 : 2018. 8. 6(월) ~ 2018. 9. 14(금) 17 : 00까지



- 해너문화콘텐츠 문화상품 개발 공모전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 공모주제 : 해너콘텐츠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 개발
- 공모기간 : 2018. 9. 3(월) ~ 2018. 9. 28(금)



- 한주소금 마케팅 공모전
- 공모전 분야 : 광고·마케팅
- 공모자격 : 전국의 대학(원)생 팀당 5명 이내로 구성(개인도 가능)
- 공모기간 : ~2018. 9.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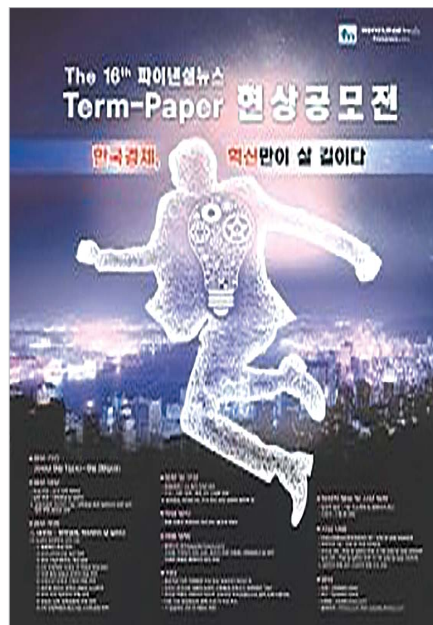
- 제3회 청년 이야기 대상
- 공모전 분야 : 생활 수필
- 응모주제 : 청년으로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이야기
- 공모기간 : ~2018. 9. 14(금)
- 접수방법 : www.positive.co.kr/entry 제3회 청년이야기대상 응모게시판



- 20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 공모전 분야 : 만화·공연
- 작품주제 : 일본군 '위안부' 관련 피해자 관련 모든 소재
- 접수기간 : ~2018. 9. 21(화) 18 : 00 까지



- 2018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영상물 공모전
- 공모전 분야 : UCC
- 공모기간 : ~2018. 9. 28(금)
- 응모방법 : 참가신청서와 영상물 시놉시스를 zip로 압축하여 업로드 (www.integritycontents.kr)



- 제16회 파이낸셜뉴스 Team-Paper 현상 공모전
- 공모전 분야 : 웹툰
- 접수기간 : ~2018. 9. 30(일)
- 공모주제 : 바다와 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해양생물의 이야기를 역동적이고 독창적인 표현



- 제3회 No.1 마시멜로 픽션상
- 공모전 분야 : 웹툰
- 공모자격 : 미등단 신인 및 기성작가
- 공모주제 : 초등 여자 어린이 대상 장편 동화(장르불문)



동서인의 센스 넘치는 N행시!

수 :

강 :

신 :

청 :



이번주제는 개강 후 새롭게 한 “수강신청”이다.
학우들의 센스 넘치는 N행시를 기대해 본다.

예시)

여 : 여름이 왔다!

름 : 늴(름)한 자태를 뽐낼 때가 왔다!

방 : 방구석과

학 : 학교에서 벗어나 물놀이를 하러가자!



- 학과 : _____
 - 학년 : _____
 - 이름 : _____
 - 연락처 : _____
-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 9월 18일까지 퍼즐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9월 21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